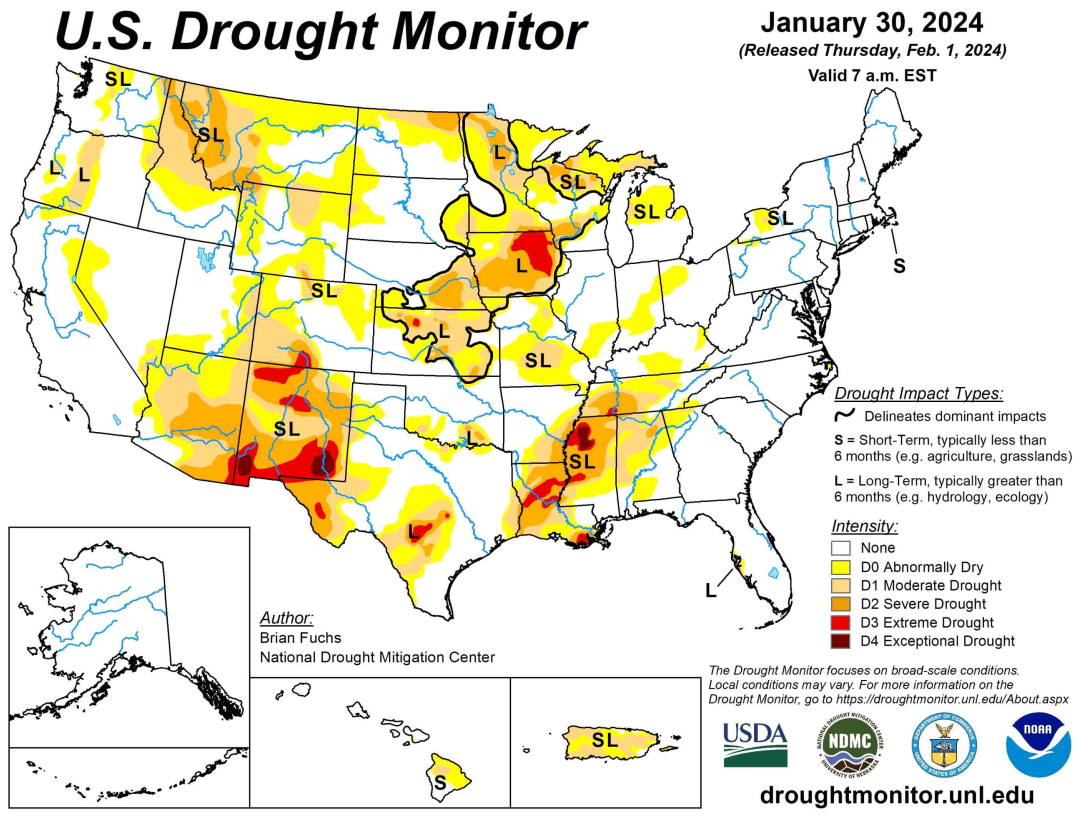


2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11, No. 6)

□ 미국 기후 현황(1/28-2/3)

1월 말과 2월 초에 서해안을 따라 도착한 한 쌍의 태평양 폭풍 전선이 폭우, 산지 눈 그리고 강풍을 가져왔다. 더 강한 두 번째 전선에서 서부가 받은 많은 영향들이 2월 4-6일까지 미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다루어질 예정이다. 첫 번째 전선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내륙으로 느리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동쪽으로 이동하여 주말에 미국 중부 지역 일부에, 그리고 또한 멕시코만 연안 주들의 서부와 중부에도, 강수를 발생시켰다. 그 폭풍에는 찬 공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높은 대부분 서부 그리고 고원의 북부와 중부의 더 높은 고지대에 제한적으로 내렸다. 일반적으로 남동부와 중서부의 위쪽을 포함하여 미국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. 그러나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하부 지역에서부터 뉴잉글랜드 북부를 제외한 북동부까지는 주초에 약간의 강수 - 대부분이 비 - 가 계속되었다. 횡행하는 온기가 평원 전역과 중서부 대부분 지역의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10-30° F 밀어 올려서 따뜻함이 북동부까지 확장되었다. 미국 서부의 북반부 전역의 수치도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평균 최소 10° F 높았다. 대조적으로 남동부 남쪽, 주로 플로리다반도 전역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° F 낮았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

자료 없음

□ 세계 기후 현황(1/28-2/3)

■ 유럽:

바람이 불어오는 북유럽 일부에서 국지적인 폭우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는 화창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만연했다. 그리스 (평년보다 1-3° C 낮음)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2주 연속 비정상적인 따뜻함 (평년보다 최대 6° C 높음)이 만연했다.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7일 평균 기온이 10° C에 육박하고 있고 낮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햇빛이 강해지면서 겨울 작물들이 평년보다 1달 이상 일찍 휴면을 깨기 시작했다. 마찬가지로 독일 북부와 서부 (주간 평균 기온이 8° C에 육박함)에서는 겨울 작물들이 내한성을 잃었다. 그러나 7일 평균 기온이 5° C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동유럽에서는 겨울 밀, 보리 및 유채가 여전히 휴면 상태에 있었다. 더 남쪽에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겨울 곡물들이 영양 성장을 더했으나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었다. 영국과 노르웨이의 서부 지역에 보통 내지 강한 비 (25-100 mm, 국지적으로 그 이상)가 기록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화창한 하늘이 야외 계절 작업을 촉진했다.

■ 구소련(서부):

자료 없음

■ 동아시아:

자료 없음

■ 호주:

광범위하면서도 국지적으로는 강하게 내린 비 (25-50 mm, 국지적으로 100 mm 이상)가 퀘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 널리 퍼져서 여름작물들을 위한 근권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. 그 비와 이로 인해 덮인 구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계절과 달리 따뜻함을 유지하여 평년보다 평균 1-2°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후반과 40도 초반이었다. 그런 더운 날씨가 증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그 비가 근권 토양의 수분을 평균 또는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주어 여름작물의 발달을 도왔다. 호주 동부의 다른 지역 중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에서는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관개 여름작물들의 발달에 박차를 가했다.



■ 아르헨티나:

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함과 더위가 생식기 여름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. 중앙 아르헨티나 (라팜파,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코르도바 남부에서부터 동쪽으로 엔트레리오스 전체에 있는 인근 대표지들)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-6° C 높았고 지역 전체적으로 여러 날 동안 최고 기온이 37-40° C에 이르렀다.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와 동부는 주기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(5-45 mm)를 제외하면 주요 농업 지역들이 완전히 건조하여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건조 추세가 이어졌다. 일정 기간 폭우가 내린 후에 그 건조가 처음에는 유익했지만 최근의 기온 상승과 결합하면서 옥수수, 대두 및 이전에 유리한 성장 조건을 경험했던 기타 여름작물들의 잠재적인 수확량 감소 경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. 비슷한 상태가 북부 전역에 만연하여 사실상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-4° C 높았다 (북서부 먼 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5° C에 달함)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여름곡물, 유지작물 및 면화의 파종은 2월 1일 현재 거의 완전히 완료되었다; 해바라기는 15 퍼센트 수확되었고 야외 작업은 보다 일찍 성숙 중인 북부 생산 지역에 집중되었다.

■ 브라질:

계절에 맞지 않는 더위와 건조가 있었던 남부 농업 지역과 대조적으로 더 먼 북쪽에서는 유익한 비가 내려 여름작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유지했다. 마투그로수두술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10 mm 미만이었고 20 mm를 넘었다고 보고한 곳은 거의 없었다.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반에 도달하여 앞서 익은 주철 작물들을 포함하여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에게 미치는 건조의 영향을 악화시켰다. 정부 보고에 따르면 파라나의 1기작 옥수수와 대두는 모두 1월 29일 현재 19 퍼센트 수확되었다; 2기작 옥수수는 22 퍼센트 파종되었고 이 중에서 생식에 도달한 작물은 전혀 없었다.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1월 31일 현재 옥수수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고 거의 60 퍼센트가 성숙 또는 수확되었다; 한편 대두의 50 퍼센트가 개화에 도달했다. 더 북쪽에서는 마투그로수에서부터 동쪽으로 보통 내지 강한 비 (25-100 mm, 국지적으로 더 높음)가 내렸는데, 대부분의 대두에게는 너무 늦게 왔으나 출현 내지 영양기에 있는 옥수수와 면화에게는 아주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.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대두는 2월 2일 현재 39 퍼센트 수확되어 작년의 24 퍼센트와 대조되었다; 옥수수와 면화 파종은 각각 29 및 95 퍼센트 완료되었는데 이는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앞선 것이었다. 낮 최고 기온은 주로 30도 초중반이어서 추가 스트레스 없이 옥수수와 면화의 초기 성장을 촉진했다.